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笑い) - 『공중그네(空中ブランコ)』와 『남쪽으로 튀어 (サウスバウンド)』를 중심으로 -

이 은 희*

奥田英朗の小説の中心軸では笑いと関係をつなぐことが叙事構造に戦略的に仕掛けられている。読者たちはその小説を通して厳粛さと真剣さ、重苦しいテーマの補いものという些細で、軽く軽快な物語に会うようになる。「空中ブランコ」で描かれる笑いは人間の欠点や失敗を善意でもってやさしく包みこみ、共感するという立場から描かれている。「サウスバウンド」で父の一郎に投影した実験は人間の条件に関する省察と人生の真正なる自由は何を意味するか探索だ。現代人たちが追及する物質的な豊饒、名誉、権力、社会的な地位、学閥などで風紀は俗物根性を作家は鋭く暴き出す。

奥田英朗は作品を通して人物たちが人生または秩序と安定は街が遠い混沌としている纏れた人生行路を経由している。彼らの哀歎と嬉しき、そして這いゆく人生の方程式を笑いで解きだしながら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非情の世界がまだ夢見る可能性のある世界だということを見せてくれる。高いところで超然な態度で見下しながら人間の愚かな部分を嘲り笑うのではなく人間の愚かさを笑い飛ばし、それが自分自身を含む人間たちの悲しい性であるという憐憫と愛を生み出す笑いだ。

キーワード : 笑い、戯画化、ユーモア、語り手、人物の類型
(웃음, 회화화, 유머, 화자, 인물의 유형)

1. 서론

오쿠다 히데오는 1959년 기후현(岐阜県) 출신으로 『우람바나의 숲(ウランバーナの森)』(1997)으로 데뷔한다. 주요 수상경력으로 『망해(邪魔)』(2001)로 오오야부 하루히코상(大藪春彦賞), 『공중그네

* 계명대학교 강사

(空中ブランコ)』(2004)로, 나오키상(直木三賞), 『남쪽으로 튀어(サウスバウンド)』로 일본서점대상, 『오해피데이(家日和)』(2007)로 시바타 렌자부로상(柴田鍊三郎賞), 『올림픽의 몸값(オリンピックの身代金)』(2009)으로 요시타 에이지문학상(吉川英治文学賞)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여러 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순문학의 예술적인 측면을 살리면서 대중성을 확보한 작가로도 평가할 수 있다.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평가로는 유머러스함 속에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만드는 작가로 결말까지 이끌어나가는 구성력은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기형적 상황을 장치하여 독자가 기대하지 못한 웃음을 창출하는데 그 웃음은 심지어 치유를 동반한다. 그리하여 작가가 또한 인터뷰¹⁾를 통해 웃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사회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서 인물은 대개 현실감이 높다. 인물들이 처한 무겁고 침울한 상황, 부재와 결핍의 상황에서 비장미마저 느껴지지만 작가가 제시한 장치는 독자가 기대하지 못한 인물과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아울러 기형적이거나 극단적인 인물들과 예측 가능한 현실적인 인물들과의 극명한 명암대비, 소재의 기발함 등으로 작가적 논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빠른 전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에 정면으로 승부하면서도 진지함과 희극적 특성을 동시에 살리며, 독자들에게는 상황에서 오는 조언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웃음을 유발하여 치유를 이끌어 내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오쿠다 히데오는 국내의 국문학자들을 통해 한국 소설과 비교, 일본문학에 대한 평가에 작가와 작품인용 등에 시

1) 「『イン・ザ・プール』では、精神科医と患者を扱ったわけで、ともすればヘビーになりかねない設定ですけど、ユーモア小説の範疇^{はんちゆう}で書きたかった。基本的に、ぼくはユーモアの人間なんだと思いますね。ユーモアのセンスって難しいと思うけど、人間のセンスがいちばん顯れるんじゃないかなあ。映画を見ている、泣く場面ではなくて「ここで笑える人と友達になりたい」と(笑)。そう、映画でもストーリーというよりディテールに、惹かれますね。」

奥田英朗(2002) 「クッスと笑わせたい-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本の話』8巻6号、文芸春秋、p.33.

도되고 있다.²⁾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문학 연구자들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첫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以上)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웃음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속에서 구현된 웃음에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이 의미하는 점은 플레스너(Plessner)의 웃음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웃음이란 육체에 정신이 예속된 것이 아니며, 정신과 독립된 육체에 통제되지 않거나 폭발적 대상이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웃음이 기본적으로 육체적 반응의 하나라는 것에 주목해 웃음이 갖고 있는 반규율적이고 해방된 측면을 포착한 것이다.³⁾ 현대의 독자는 자본주의로 포박된 일상과 삶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문학 속에서 해방적 웃음을 찾고 있다. 이런 요구의 결과로 오쿠다 히데오는 한국 독자와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작품의 중심축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슬프고 절박한 상황을 웃음으로 치유와 해방을 얻는 방법이 문학적으로 탐구되어 있다. 프로이트(1997)는 웃음을 “자신의 존재를 동요시키는 절망으로 내모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정신의 위대함”⁴⁾이라 설명하였고 가라타니 고진(2002) 역시 “웃음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선 일종의 정신적 태도”⁵⁾라고 하였다. 오쿠다 히데오의 문학 속에 존재하는 핵심 요소인 웃음은 독자에게 고통의 처소에서 스스로를 거리화하여 바로 거리화를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는 치유와 연동하는

2) 오창은(2007) 『웃음의 미학, 비애의 휘발』 『실천문학』 2007년 겨울호, 실천문학사, pp.210-218.

이선경(2009) 『한·일 소설에 나타난 다중성(多衆性, multitude) - 김영하(金英夏)와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 소설을 중심으로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Vol. 5 No. 0,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99-114.

이정엽(2007)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학산문학』 2007년 봄호, 학산문학사, pp.275-284.

3) 류종영(2000)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서적, pp.201-237.

오창은(2007) 전계논문, p.214.

4) 프로이트, 임인주 옮김(1997)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p.127.

5) 가라타니 고진, 이경훈 옮김(2002)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p.53.

성찰적 시도로 그의 작품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 중에서도 웃음의 구조와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중그네(空中ブランク)』와 『남쪽으로 튀어(サウスバウンド)』를 중심으로 서사구조를 살펴보면서 시점 및 인물들을 ‘웃음’이란 키워드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후에 각 텍스트간의 웃음 성격을 해부할 것이다. 주요 분석대상 작품은 아니지만, 『공중그네(空中ブランク)』와 함께 ‘이라부 3부작’이라고 불리는 『면장선거(町長選挙)』, 『인터풀(In the pool)』과 그 외 웃음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작품도 포함시킬 것이다. 수용한 이유는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2. 시점과 웃음

소설의 시점은 독자와 등장인물을 연결하는 작품 고유의 시각이며, 서술자의 어조와 태도 역시 그러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과 상황 등을 평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민감하게 지각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관찰하여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독자는 ‘한 관찰하는 정신이라는 매개’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이것이 서사문학으로서 소설의 한계이자 가장 특별한 점이다.⁶⁾ 희극적 상황의 연출도 사실상 소설 속의 인물을 대하는 서술자의 언어와 태도에 의해, 혹은 작품 내 서술자의 성격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에서 시점이 웃음과 관계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중그네』의 주인공인 신경정신과 의사 이라부는 희화(戲画)적 캐릭터로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생성해 낸다. 이런 희화적 인물인 이라부의 초점화자는 희극적 요소와 상반된 다양한 보편적 캐릭터

6) 이상진(2009) 『한국 현대 소설의 희극성 연구 시론』 『우리문학연구』32집, 우리 문학회, pp.398-399.

의 환자를 통해서이다. 일상적인 우울과 부재의 결핍을 겪고 있는 환자의 시선으로 묘사되는 이라부의 외모, 행동, 언어 등은 비밀상성이 강조되어 지성에 대한 상식적 이미지가 파괴되고 있다. 구체적 예로 짧은 다리, 늘어진 턱살, 과다하게 붙은 배의 삼겹살, 환자 앞에서 태연히 코딱지를 후벼 가운데 닦는 행동, 거침없는 직설적 언어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의사라는 예측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서 예측 불가능 인물로 창조되어 다양한 신경증을 앓고 있는 일본 사회의 파편화된 개인들의 우위에서 이들의 눈높이로 애써 자신을 낮춤으로써 웃음이 생산되고 있다.

(1) 대학 시절부터 이라부는 화제의 보고(宝庫)였다. 모든 행동이 이상했던 것이다. 표본골격에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고, 하얀 실크 가운을 맞춰 입고, 도둑고양이를 잡아다 비타민 주사를 놓았다. 정원에 있는 연못의 잉어는 이라부가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大学時代から伊良部は話題の宝庫だった。行動のすべてが変なのだ。骨格標本に蛍光塗料を塗り、シルクの白衣をあつらえ、野良猫を捕まえてはビタミン注射を打っていた。中庭の池の鯉は、すべて伊良部に食べられたという話だ⁷⁾。

(2) 이라부가 페인트 깡통을 열더니 붓을 집어넣는다. 페인트 점도(粘度)가 높아서 방울방울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이라부의 철저한 준비성에 다쓰로는 감탄했다. 나는 이라부를 얼마나 아는 걸까. 6년간 캠퍼스에서 지내면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별난 놈, 주위에서도 그 한마디로 끝내버렸다.

伊良部がペンキの缶を開け、刷毛を浸け込んだ。粘度の高い塗料らしく、滴る心配はなさそうだ。用意のよさに達郎は感心した。自分は伊良部をどこまで知っているのだろう。六年間同じキャンパスで過ごしながら、大して意識することはなかった。変なやつ、周囲もそのひとことで済ませていた。(pp.143~144.)

(3) 신이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앞의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 이중 턱, 비듬이 빠져나

7) 奥田英朗(2008) 『空中ブランク』 文芸春秋, p.122. 이하 본문인용은 페이지만 표시.

은 부스스한 머리칼, 도라에몽을 떠올리게 하는 굵은 손가락.
한마디로 봉제 인형처럼 생긴 남자였다.

真一は眉をひそめ、目の前の男をまじまじと見た。首を探すのが困難なほどの二重顎、フケの浮き出たぼさぼさ頭、ドラえもんを思わせる太い指。全体がぬいぐるみのような男だった。

(p.181)

(4) 1인용 소파에 파묻혀 앉아 코를 후빈다. 왜 그런지 저항할 기력마저 사라져버린다. 눈앞에 보이는 저 남자는 영락 없는 다섯 살짜리 아이다.

一人がけのソファーにもたれ、鼻をほじっている。なんだか抵抗する気も先せた。目の前の丸っこい男は、まるで五歳児だ。

(p.243)

위의 예문(1)~(4)는 이라부에 대한 묘사로 환자들의 시선에서 초점화 되고 있다. 정상외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장된 행동과 외모로 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물의 희극적 결함으로 서의 우스꽝스러움이다. 플레쓰너에 의하면 우스꽝스러운 것의 진정한 본질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고 따라서 희극적인 것의 목적은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과 교정에 있다⁸⁾고 보고 있다. 이라부의 행동과 외모가 서술자인 여러 환자들의 낮게 또는 높게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대상을 해학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유희적으로 희화화시키고 있다. 결국 『공중그네』에서 서술자 기능은 작가적 관점보다는 인물 시각을 반영하는 서술의 거리 조정과 초점화를 통하여 타자성을 다각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해석하려는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독자는 이라부를 통해 새로운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남쪽으로 튀어』의 서사를 이끄는 두 축은 ‘성장’과 ‘탈주’라고 볼 수 있다. 상권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아버지 우에하라 이치로(上原一朗)가 이끄는 가족과 우에하라 지로(上原二郎)를 괴롭히는 중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한 성장기가 그려진다. 하권은 남쪽섬에 정착하면서 혁명가인 아버지가 가장으로

8) 류종영(2000) 전계서 p.192.

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점점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작품의 시점은 아버지인 우에하라 이치로의 탈주를 바라보는 초등학생인 우에하라 지로의 입장에서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다.

(1) “그러니까 나는 국민을 관두겠다잖아” 아직도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 나라가 싫은 모양이다. 걸핏하면 “학교 같은 것, 억지로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로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무리한 강요이며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だから国民をやめると言ってるだろう、まだやっていた。父はどうやら国が嫌いらしい。ことあるごとに、学校など無理して行かなくてもいいからな、と二郎の肩を叩く。義務教育は国の押しつけであり、拒否する権利があるらしい9)。

(2) “우리 아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선생, 어쩔거요?” …(중략)… 미나미 선생님의 목이 꼰꼰하고 울렸다. 이마에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아, 그, 그러면 지로와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이해?” “일단 국기 게양과 기미가야 제창은 학교법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학생들이 모두 다 일본인인 건 아니잖소?” “저어, 우에하라 씨 태은……” “물론 일본사람이지.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에 참가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별 성가신 부모도 다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うちの息子が、君が代を唄わないって言ったら、先生、どうする、…(中略)…南先生がゴクリと喉を鳴らした。額には汗が滲んでいる。「ええと、二郎君と話し合って、できれば理解を得たいと」「どういう理解だ」「一応、日の丸掲揚と君が代斉唱は、学校法で定められているわけで、「生徒が全員日本人とは限らんだろう」、「あのう、上原さんのお宅は……」、「日本人だよ。でもな、国家という共同体に参加するしないは個人の自由だろう」先生の表情が硬くなった。やっかいな親がいるなと思っているのだろう。

(pp.43-44)

(3)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실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

9) 奥田英朗(2009) 『サウスバウンド』 上・下、文芸春秋、pp.19-20. 이하 본문인 용은 페이지만 표시.

니야. 공부하는 내용도 그렇고 집단생활의 규칙 같은 것도 그래. 정해진 통학로로만 다녀야 하다니, 그런 건 명백하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규칙이잖니? 나라에서는 국민을, 어른은 어린애들을 그저 편리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뿐이야.” 어머니까지 아버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하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을 것이다.

「あなたが学校で教えられてることって、本当はたいして重要なことじゃないの。勉強はもちろん、集団生活のルールなんかでも。だって、通学路しか通っちゃいけないなんて、あきらかに意味のない決め事でしょ。国は国民を、大人は子供を、それぞれ管理したいだけなんだから」母が、父が言うようなことを口にした。結局、似た者同士だから夫婦になったのだろう。(p.315)

(4) 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의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때는 어지간히 태평한 시대였거나 아니면 착하고 순수한 청소년들의 낙원이었던 것 분명하다.

大人たちは、自分が子供だった頃のことをどれだけ憶えているのだろう。これで解決すると信じているなら、昔はよほどのんびりした時代だったか、素直な少年少女たちの樂園だったにちがいない。(p.110)

국민의 의무를 부르짖는 세금 징수원에게 ‘그럼 나는 국민을 관 두겠어’ 라고 일갈하는 아버지 이치로와 아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거요’ 라는 질문에 미나미 선생님이 곤란해 하는 모습이 지로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 예문(1), (2)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행동이 부끄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져서 서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문(3)에서 어머니인 사쿠라 또한 누구나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의무 교육제도를 두고 ‘나라에서는 국민을 어른은 어린애들을 그저 편리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로는 부부는 서로 닳는 것이라 판단내리는 것은 초등학생인 지로의 수준에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예문(4)에서는 가쓰의 부당한 폭력에 어른들의 무능을 내면

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성장소설의 구도라면 지로가 세상과 부딪히는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권의 전설적 투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과 좌충우돌 부딪치는 모습이 아들 지로의 걱정스런 시선으로 서술되는 것이 오히려 웃음을 창출하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의 웃음은 어린 소년 화자가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어른들의 세계를 비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때로는 화자가 다시 어린아이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데서 나온다.

3. 다양한 인물의 조형

오쿠다 히데오 소설에서는 웃음의 허를 찌르는 순간이 인물의 성격에 힘입은 바 크다. 『공중그네』의 작중 인물¹⁰⁾ 역시도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자라기에 편안하고 기상천외한 개성 때문에 독자들의 흥미가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공중그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이며, 강박증을 앓는 인물이다. 뽕족한 물건만 보면 오금을 못 퍼는 야쿠자의 중간 보스, 공중그네에서 번번이 추락하는 베테랑 곡예사, 병원 원장이기도 한 장인의 가발을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젊은 의사 등의 다양한 캐릭터의 환자들과 그들을 맞이하는 의사 이라부와 간호사 마유미의 등장인물이 웃음을 이루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0) 「僕は人間の滑稽さを描くことをずっとしてきているのですが、たぶんほうっておくとユーモアに走るんです。あまり深刻に物事を考えるのが好きじゃないんですね。問題作とか衝撃作って苦手なんです。踏み込むのが文学だと思っている人はいるでしょうけど、だとしたら僕には文学は必要ない。踏み込んで解決するならいいですが、解決しないんだから、楽に考えることを探ったほうがいい。伊良部シリーズなどはまさにそうですね。シリアスに描こうと思えば、ものすごくシリアスな問題ばかりなんです。患者はみんな、仕事や生活がかかっている人たちなんだから。それをシリアスに考えたら解決するのかというと、しないわけですね。だったら軽く生きる知恵みたいなものを考え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

奥田英朗(2002) 「小説執筆中に巨大な石が動く瞬間-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 『本の話』10巻 5号、文芸春秋、p.37.

『면장선거(町長選挙)』에서는 이라부에게 맞춰졌던 포커스가 수수께끼 간호사 마유미에게 방향을 조금 틀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록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수당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주사를 놓으며 살며시 베일 한 자락을 걷어낸다. 뛰어난 미모와 추측 불가능한 성격이 웬지 모를 위축감을 느끼게도 하는 그녀지만, 이라부에 뒤지지 않는 매력적인 캐릭터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황당무계한 인물의 등장으로 복잡한 인간관계와 고정관념으로 얽혀있는 현실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순간을 만들어 낸다.

(1) 의문을 가질 틈도 없이 왼쪽 팔에 고무줄이 칭칭 감겼다. 마유미라는 간호사가 주사기를 푹 찔렀다. “아아아아아!” 영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가 몸을 굽힌다. 가슴 사이 계곡이 한 눈에 들어왔다. 달콤한 향수 냄새도 풍겼다. 언뜻 옆을 쳐다봤더니 상기된 얼굴의 이라부가 바늘이 뚫고 들어간 부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고헤이의 미간에 펜 주름이 1엔짜리 동전이 들어갈 만큼 깊어졌다. 도쿄 의사는 다 이런 건가? 자기의 상식 수준이 의심스러워졌다.

疑問をはさむ間もなく、左腕をゴムチューブで巻かれた。マユミという看護婦が注射器を突き刺す。“痛ててて”思わず声をあげた。看護婦が身をかかめる。胸の谷間がくっきりと見えた。香水のいい匂いもした。ふと横を見る。伊良部が顔を上気させ、針が皮膚に刺さった箇所を凝視していた。公平の眉間の皺が、一円玉がはさまるほど深くなる。東京の医療はこうなのか? 自分の常識が不安になった。(p.15)

(2) “왕진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도 함께 왔어요.” 정말 온 거야? 그것도 아침 댓바람부터. “야마시타 씨~!” 나가보니 이라부가 출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뒤에 노란색 포르세가 서 있었다. “공연 전에 연습하지? 그럼 나도 좀 끼워줘.” 사진을 찍어두고 싶을 만큼 신이 난 표정이었다. 나도 끼워달라니?“그 전에 주사 먼저.” 가방을 툭툭 두드린다. 고헤이는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양호실에서 주사를 맞았다. 동행한 간호사는 흰 가운이 아니라 표범 무늬 핫팬츠를 입고 왔다. 이라부는 저지 셔츠 차림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2인조다.

「往診だそうです。看護婦さんも一緒です、本当に来たの? しか

もこんな朝っぱらから。「山下き一ん,行ってみると、伊良部が通用口で手を振っていた。うしろには黄緑色のポルシェが停まっている。「開演前に練習とかするんでしょ。だったらぼくも混ぜてよ、写真に収めたいほど、うれしそうな顔をしていた。ぼくも混ぜてよだって? “その前に注射ね”鞆をボンボンとたたく。公平はあっけにとられるばかりだった。常設の保険室で注射を打たれた。同行した看護婦は、白衣ではなく、豹柄のホットパンツを穿いていた。伊良部はジャージを姿だ。理解困難な二人組だった。(p.21)

(3) 이라부가 가발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뒤통수 쪽 본래 머리칼이 함께 딸려 올라간다. “이케짱.” 이라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양옆에 핀이 꽃혀 있는 거 같아. 좀 빼줄래?” 미친놈. 왜 날 끌어들여.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빨리!” 이라부가 재촉했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다쓰로에게 쏠렸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모두 자기를 이라부와 같은 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수 없군.” 다쓰로가 도와주지 않자, 이라부는 일단 손을 놓고 도라에몽 같은 손가락으로 나비 날개를 잡듯이 핀을 빼냈다. 찰칵.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짜~잔!” 이라부가 가발을 들어올렸다. 눈앞에 노무라의 대머리가 훤히 드러났다.

伊良部がカツラをゆっくりと持ち上げる。側頭部の地毛が一緒に引っ張られた。“池チャン。” 伊良部が小声でささやく。“両脇にピンがあるみたい。外してくれない?” 馬鹿。おれを巻き込むな。心の中で叫んだ。“早く”伊良部が手招きする。周囲の視線が達郎に注がれた。なんてことだ。完全に仲間だと思われている。“しょうがないなあ”達郎が働けないでいると、伊良部は一旦手を離し、ドラえもんに似た指で、蝶の羽をつまむようにピンを外した。パチン。かすかな音がした。“じゃじゃーん”伊良部がカツラを持ち上げた。目の前に、野村のハゲ頭が現出した。(p.165)

위의 예문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행동과 모습에서 통념을 벗어난 어떤 인물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환자인 인물의 예로 예문(3)의 다쓰로는 파괴본능에 일탈 중독에 시달리는 이라부의 동기생이다. 장인의 가발을 벗기고 싶어 하는 다쓰로를 위해 이라부가 펌팩트한 기행을 일삼는 장면이다.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이라부는 야쿠자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판 현장에 찾아가 자

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거대한 몸을 공중그네에 날려 보기도 하며, 베테랑 야구 선수를 상대로 발전 가능성은 추호도 없는 배팅 연습에 가담도 하고, 인기 작가에 따라 소설도 후딱 써 버리는 등 그들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 환자들의 치유과정에서 이라부의 행동은 보다 강한 과장과 회화화로 희극적 상황을 극대화한다.

인물이 스스로를 회화화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창출할 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작가는 다양한 군상과 인물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상을 담아내면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직시하고 풍자하는 그의 작품에는 진지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우리 존재의 풍경, 유쾌함 속에서 생의 비감을 되씹게 하는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형적 상황에서 유발된 웃음은 단순한 소재적 차원을 넘어 웃음이 유발되는 공간과 장치에서 애써 비장미를 발견하면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누구도 조소하지 않는 무엇보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창의적인 인물구도로 독자는 예상치 못한 치유를 만나게 된다. 이 유형이 생성하는 웃음은 화자 스스로의 회화화와 서술적 진술에 의해 놀이 공간적 성격을 띠게 된 테스트와 어우러져 문제의 심각성을 돌파해내는 웃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남쪽으로 튀어』에서의 아버지인 이치로는 혁공동(아시아 혁명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설적인 행동 대장이었지만, 좌파 학생운동의 권력 지향적인 성격에 염증을 느끼고 아나키스트로 전향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은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스스로를 ‘국가와 자본가에 저항하는’ 순수 개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연인으로 돌아가고픈 것이 현대인의 잠재된 욕구이다. 도시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의 여유와 소박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 우에하라 이치로이다. 황당한 이탈을 행하고 있는 인물로 부각되지만 통쾌한 역전 현상은 정해진 틀대로 살아가면서 뻔히 보이는 결과를 예감하며 사는 현실의 우리에게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오쿠다 히데오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상징이거나 혹은 이러한 세계와 대비되는 세계상과 인물에 대한 정밀한 묘사이며 극명한 대비에서 인물들의 존재감과 명암이 부각된다. 이들은 단순한 이탈과 해방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의 탈출을 제안한다.

(1) “그럼 나는 국민을 관두겠어.” 아버지가 가슴을 짝 짓히며 말했다. “예?” 아주머니의 목이 앞으로 쭉 내밀어졌다. “일본 국민이기를 관두겠다고. 애초부터 원했던 일도 아니었으니까.” “……어디, 해외로 이주하시려고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낮아진다. “내가 왜 해외로 나가? 여기 거주한 채로 국민이기를 관둘 거야.”

「じゃあ国民をやめた」父が、胸を反らせて言った。「はい?」とばさんが首をひょいと前に出す。「日本国民であることをやめる。もともと望んだものでもないしな」「……どこか海外に移住なさるんですか」急に声のトーンが下がった。「なぜ海外に行かなきゃならん。ここに住んだまま国民をやめるんだ」(p.18)

(2) “우와, 꽤 자세히 보인다, 보여.” 확실하지 않은 만큼 더욱 더 상상력을 자극했다. 바지춤에서 성기가 열을 띠기 시작했다. “웃, 짓이 흔들린다.” 사실이었다. 여자가 탕 안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어디, 어디.” 흥분한 준이 목에 매달렸다. “아직 1분 안 됐어.” 준을 밀어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준에게 쌍안경을 건넸다. 무카이와 눈이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입가가 헤실헤실 풀어져다. “무카이, 역시 외국 사람도 거기 털은 검구나.” …(중략)… 린조는 아무 소리도 없이 일심불란하게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엄청난 집중력이다. 그러니 공부 잘 하는 것이리라. “게르만 민족은 역시 우수해.” 무카이는 쌍안경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능청맞은 녀석. 판전 피우는 데는 선수였다. 쌍안경은 도합 다섯 바퀴를 돌았다.

「おい、結構見えるぞ、はっきりしないぶん、想像力がかき立てられた。ズボンの中で性器が熱をはらんできた。「おっ、OPPパイが揺れた、事実だった。湯船から女が出るところだったのだ。「どれどれ」興奮した淳が首にしがみついていた。「まだ一分経ってねえだろう、淳を押し返す。時間が来たところで淳に双眼鏡を渡した。向井と目が合い、つい口元が緩んでしまう。「なあ向井、やっぱガイジンでも、アソコの毛は黒いんだな、…(中略)…リンゾウは、一心不乱に双眼鏡をのぞいていた。すごい集中力だ。だから勉強ができるのだろう。「ゲルマン民族は優秀だなあ、向井は双眼鏡の性能に感心していた。どこまでもとぼけた男だ。双眼鏡は五巡した。(pp.60-62)

예문(1)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치로는 돈키호테형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돈키호테형 인물의 특성을 가진 아버지 우에하라 이치로는 개인에게는 무기력한 사회이지만, 언젠가는 저항하는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2)에서는 지로와 여러 친구들이 오쿠보(大久保)에 여탕을 슬쩍 들여다볼 수 있는 빌딩에서 쌍안경을 돌려가며 보는 호기심 어린 행동이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다. 오쿠다 히데오는 인터뷰¹¹⁾를 통해서 소년의 시점을 중시하면서 그들의 순진함을 그리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 전체에서 지로와 함께 등장하는 소년, 소녀의 행위와 모습에서 친진스러운 다양한 캐릭터는 분명 웃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소설이란 엄숙해야 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어엎는 오쿠다 히데오의 웃음의 미학을 읽을 수 있다.

『공중그네』와 『남쪽으로 튀어』의 주인공들에서는 따끈한 체온이 감도는 참 인간의 모습이 발견되고 푸근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된다. 오쿠다 히데오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우리네 범속한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완벽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은 모습이기에 편안하고 친근하다. 소설 속의 상황이 영똥하고 기묘한 듯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축도이며 상징인 것이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유머로 그려내면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학이 긴장 이완과 웃음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11) 「僕がこの小説を少年の視点で書いたのは、そうした「純粹さ」を書きた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何事にも斜に構えない人たちというのは、今はもう、そこぐらいにしか残って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して、本書に登場する小学生たちの個性豊かでリアルなこと。主人公の二郎もユニークですが、幼馴染のチビの淳や、時代劇に出てくるご隠居みたいな年寄りじみた物言いをする印鑑屋の息子の向井や、医者の子のリンゾウなど、どれも味があり、「こういうヤツ、自分のクラスにもいたよなあ」と思わされるキャラクターです。」
 奥田英朗・藤原理加(2005) 「人が守るべきものとは? 痛快なユートピアの物語-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本の旅人』11巻 7号、角川書店、p.6.

4. 웃음의 성격

『공중그네』에서는 강박증에 빠진 다섯 명의 환자들과 의사인 이라부가 벌이는 치료과정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제멋대로지만 해결 될 것 같지 않던 환자들이 치료된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 새로운 해결과 방법들을 제시되는 상황, 이라부는 환자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역할극의 배우 같은 존재다. 환자는 이라부를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신과 화해한다. 환자의 억눌린 욕구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했기에 이라부의 모습이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라부의 치료법은 ‘세상의 질서를 절대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이라부를 ‘미친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진지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라부에 동화된다. 독자가 기대했던 의사다움을 배제한 모습을 하는 이라부는 그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치유의 힘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부가 불쑥불쑥 내뱉는 한마디에는 사실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함이 번득인다. 일상화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관자로 군림하는 이라부가 환자에게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1) 이런 야구가 있다는 걸 신이치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년 야구단에 들어가, 그 후로는 줄곧 이기기 위한 야구만을 해왔다. 연습 때는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고, 팀 동료는 모두 라이벌이었다. 은퇴하면 동네 야구팀에 들어가자. 이기든 지든 웃는 얼굴이 사라지지 않는 팀으로.

こういうベースボールがあることを、真一はすっかり忘れていた。小学四年生で少年野球団に入り、あとはずっと勝つための野球をやっていた。練習は歯を食いしばってやるもので、チームメイトは全員ライバルだった。引退したら草野球チームに入ろう。勝っても負けても笑顔が絶えないチームに。(p.226)

(2) 인간의 보물은 말이다. 한순간에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게 말이다. 그런 말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신에게 감사하자.

人間の宝物は言葉だ。一瞬にして人を立ち直らせてくれるの

が、言葉だ。その言葉を扱う仕事に就いたことを、自分は誇りに
思おう。神様に感謝しよう。(p.281)

예문(1)은 실패를 모르고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 온 프로야구 최고
의 반도 신이치에게 찾아 온 입스(yips)¹²⁾를 겪은 후의 내면의
묘사이다. 예문(2)는 작품성과 흥행성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강박
증에 걸린 베스트셀러 작가 호시야마 아이코가 자신의 직업을 긍정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부는 반도 신이치와 호시야마 아이코에
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장치하고 그들의 절박한 문제들을 사소
한 것으로 희화화시켜, 이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제공한다.
결국 이 웃음은 화해적이거나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데서
오는 역설적인 웃음이자 뒤집혀진 웃음이라는 점에서 희비극적인 웃
음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 뒤집기 웃음, 곧 해체적인
웃음은 종종 정상상태와 왜곡된 형상 사이의 불일치를 극대화함으로
써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창출하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한다.

『남쪽으로 튀어』에서는 풍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날카롭게 대
상을 희화화하여 조소와 공격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긍정
하는 따뜻함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로 시점으로
묘사되는 아버지 우에하라 이치로는 일방적인 풍자의 대상이 아니
라 아들의 인정을 받는 긍정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1) “이거, 뭐라고 읽어?” 모모코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
다. “경관파괴(京觀破壞). 호텔이 건설되면 경치가 나빠진다는
뜻이야.” “성 같은 호텔이 들어서면 멋있잖아.” “그런 동화 같은
건물이 여기에서 영 생똥맞은 거야.” “하지만 난 반대 안 할 수
도 있어.” 입에 웃음을 담고 있었다. “모모코, 어떤 판단이든
그렇게 너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내려서는 안돼.”

「これってなんて読むの?」「景観破壊。ホテルが建つと景色が
悪くなるってこと」「お城みたいなのができたら恰好いいじゃん」「そ

12) 입스(Yips) 증후군이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 근육 경련 현상을 말
하며, 골프에서 퍼트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흡이 빨라지며 손에 가벼
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이른다. 또한 골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이다.

ういうメルヘンチックな建物が場違いなの、「でもわたし、反対じゃないかも」含み笑いをしている。「おまえなあ、そういう自分だけの都合で判断を下すんじゃないの」(p.124-下)

(2) “지로, 전에도 말했지만 아버지를 따라하지 마라. 아버지는 약간 극단적이거든. 하지만 비겁한 어른은 되지 마. 제 이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응, 알았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철저히 싸워. 저도 좋으니까 싸워. 남하고 달라도 괜찮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

「二郎。前にも言ったが、おとうさんを見習うな。おとうさんは少し極端だからな。けれど卑怯な大人にだけはなるな。立場で生きような大人にはなるな、「うん、わかった」「これはちがうと思ったらとことん戦え。負けてもいいから戦え。人とちがっていてもいい。孤独を恐れるな。理解者は必ずいる」(p.256)

지로가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관점의 변화는 지로가 성인으로 입사하는 과정과 동시에 펼쳐진다. 중학생이 막 되려하는 지로에게 닥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은 지로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 불량 중학생 가쓰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가 느끼는 성장통은 국가 권력이 아버지 이치로에게 가하는 폭력과 겹쳐진다. 지로는 아버지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묘한 동질감을 가진다.

학원 폭력과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구속을 요구하는 강요를 피해 이리오모테 섬으로 이주하면서 펼쳐지는 하권은 탈주의 상상력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도쿄에서 룸펜으로 시간을 보내던 이치로가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이상적인 개인상을 구현하기 위한 오쿠다 히데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의식이 희미한 섬사람들의 생활은 자발적인 형태의 꼬뮌(Commune)을 떠올리게 만든다.¹³⁾ 우물을 길어 목욕을 하는 생활은 지로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지만, 그 역시 이내 섬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대가와 부모의 과

13) 이정엽(2007) 전개논문, p.280.

거를 서서히 이해하고 긍정하게 된다. 부모와 맞지 않아 혼자 도쿄 생활을 선택한 지로의 누나인 요코마저도 섬에 정착하면서 아버지인 이치로를 인정하는 과정은 전혀 맞을 이유가 없던 가족들이 아버지 이치로를 구심적으로 녹아드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작품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갈등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서, 낙원처럼 묘사된 이리오모테 섬 역시 리조트 개발 열풍을 비껴나가지 못하고 자본의 영토로 귀속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지로는 폐가를 사수하려는 아버지 이치로와 어머니 사쿠라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지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처한 운명적 상황을 긍정하게 된다. 발상의 기발함에서 오는 웃음, 독자들이 추구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방의 웃음들이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극복하도록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삶의 부정적인 면과 부조리한 것도 삶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직접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유머'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은 경쾌하고 발랄한 이야기의 만화경에 녹아든 휴머니즘의 입김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냉소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재에 동화적 순진무구함과 낙관적 달관에 바탕한 삶에 비 일상의 인물의 배치로 여유와 치유를 담고 있다. 그의 이야기의 힘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흘러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덜컥대거나 멈칫거리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호흡 조절의 절묘함, 경쾌하고 빠른 문체, 독자의 의식을 한순간 마비시키는 유쾌한 재치의 연속 등이 만들어 낸다. 그 예측 불가형은 놀람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놀람의 상황은 베르그송이 말한 까꿍 놀이의 효과와 비슷한데, 까꿍 놀이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 상자를 풀면, 이상한 물체가 튀어나옴으로써 주인공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얼굴을 감추었다가 드러내며 아이를 웃기는 경우와 같이 놀람을 수반 한다. 이 때 놀람은 바로 예기치 않

은 상황이 발생한다. 따른 억눌린 감정의 표현으로서 놀라는 대상은 놀라게 하는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 할 수 없는데서 웃음이 유발된다. 문학에서의 놀람은 곧 텍스트가 제시하는 상황이 독자로 하여금 일종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것이 궁극증을 유발하다가 마침내 뒤틀려 버림으로써 발생한다. 곧 텍스트의 제시 상황에 의해 형성된 기대구조가 무너져 버린 데서 오는 놀람이라는 점에서 주로 '불일치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의 중심축에는 웃음과 밀접한 연관을 맺도록 하는 것이 서사구조에 전략적으로 장치되어 있다. 독자들은 그의 소설을 통해 엄숙함과 진지함, 무거운 주제의식보다는 소소하고, 가볍고 경쾌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공중그네』에서 그려지는 웃음은 인간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싸며 극복하게 하는 공감적인 태도로 그려진다. 『남쪽으로 튀어』에서 아버지 이치로에게 투영한 실험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제에 대한 탐색이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학벌 등에서 풍기는 속물근성을 작가는 예리하게 해집는다. 예리하게 해집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하여 예측하지 못한 웃음으로, 독자로 하여금 원경에서 복잡함을 일순 단순화 시켜버린다. 아울러, 이치로란 우스꽝스럽고 무모한 돈키호테형 인물의 서사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오쿠다 히데오는 작품을 통해서 인물들이 뛰어 가는 삶 또한 질서와 안정과는 거리가 먼 혼돈스럽고 뒤엉킨 행로를 거치고 있다. 이들의 애환과 기쁨, 그리고 엉켜있는 삶의 방정식을 웃음으로 풀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정(非情)의 세계가 아직 꿈꾸는 것이 가능한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곳에서 초연한 태도로 내려다보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가대소(呵呵大笑)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슬픈 천성이라는 데 연민과 사랑을 던지는 웃음이다. 이처럼, 오쿠다 히데오의 탁월하고 창의적인 장치가 창출한 웃음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 웃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무엇을 작가는 진정 소중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이경훈 옮김 (2002)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p.53.
류종영 (2000)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서적, p.192, pp.201-237.
오창은 (2007) 「웃음의 미학, 비애의 휘발」 『실천문학』2007년 겨울호, 실천문학사, pp.210-218.
이상진 (2009) 「한국 현대 소설의 희극성 연구 시론」 『우리문학연구』32집, 우리문학회, pp.398-399.
이선경 (2009) 「한·일 소설에 나타난 다중성(多衆性, multitude) - 김영하(金英夏)와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소설을 중심으로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Vol. 5 No. 0,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99-114.
이정엽 (2007)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학산문학』 2007년 봄호, 학산문학사, pp.275-284.
프로이드, 임인주 옮김 (1997)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p.127.
奥田英朗(2002) 「クスッと笑わせたい-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 『本の話』8卷6号、文芸春秋、p.33.
_____ (2002) 「小説執筆中に巨大な石が動く瞬間-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 『本の話』10卷 5号、文芸春秋、p.37.
_____ (2008) 『空中ブランコ』 文芸春秋、pp.9-282.
_____ (2009) 『サウスバウンド』 上・下、文芸春秋、pp.5-356、pp.5-274.
奥田英朗・藤原理加(2005) 「人が守るべきものとは? 痛快なユートピアの物語-著者に聞く-インタビュー」 『本の旅人』11卷 7号、角川書店、p.6.

성 명(한 글) : 이 은 희

(한 자) : 李 恩 姬

(영 문) : Lee, Eun-Hee

논문영어제목 : Literature of Hideo Okuda and "Laughter"
- On the Emphasis of 『Swing in the Air』 and
『South Bound』 -

소 속 : 계명대학교 강사

E-mail : 5syare@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